

요정 대원각 사찰로 탈바꿈

김영한보살 1천억 상당 법정스님에 시주 송광사 서울분원 '길상사'로 5월 등기이전

60년 70년대 당시 '밀실정치'의 현장으로 국내 최대요정 이었던 성북동 대원각이 사찰로 바뀌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대원각 소유주 김영한보살(80)은 대원각 건물과 대지 일약 7천여평 시가 1천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법정스님(법고향기로운모임 회주)에게 시주한 것. 스님은 지난 5월 20일 현문스님(서울 약수사 주지)을 대표자로 '대한불교 조계종 대법사'로 등기이전을 마쳤고, 이후 길상사(吉祥寺)로 명칭을 바꿔 조계종 총무원에 송광사 서울분원 길상사로 등록했다. 이로써 대원각은 현재 대중을 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대 기간이 끝나는 97년 5월 공식적으로 사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김영한 보살이 대원각을 법정스님에게 시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미 지난 87년부터. 평소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언론 출판을 통해 알고 있던 김보살은 당시 절친한 친구이자 독실한 불자인 김대호보살(69)을 통해 미국 LA 고려사에서 스님을 만나 대원각을 절로 만들어 달라며 무주상 시주할 뜻을 밝혔다. 법정스님은 평생 주지직을 맡은 바 없으며 사향했다. 그러나 주위의 권유와 김보살의 순수한 뜻이 여러 차례 전달되면서 9년여만에 마침내 받아들여진 것. 또한 스님은 김보살의 무주상 보시에 감사의 표시로 절 이름을 그대로 '길상화'라는 범명도 지어주었다.



김영한씨

대원각은 일제시대 백인기씨의 발장지였던 것을 55년 김보살이 매입, 고급요정으로 운영했다. 3중회국 당시 장안 최고의 요정으로 이름을 떨치면서 정계 계계의 내노라하는 인물이 출입 '밀실정치'의 온상으로 '요정정치'라는 조어가 만들어낸 야사도 지났다. 80년대 들어서면서 강남지역 개발과 함께 요정의 쇠락으로 명망 잃고 지금은 고급 대중을 식점으로 임대 운영되고 있다. 김보살과 같이 소유주의 불심어린 시주로 요정이 사찰로



국내 최대 요정 대원각이 97년 5월부터 사찰 길상사로 바뀐다.

바뀐 곳은 서울에서만 송광사 서울분원 법원사에 이어 대원각이 두번째이다. 대원각에 들어설 길상사의 운영에 대해 법정스님은 시주자의 순수한 의사를 살펴 재가

불자들을 위한 정신운동 도장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과 함께 김보살의 뜻을 기리는 장학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日 벤처업계 대부 스님된다

교세라社 이나모리회장 내년 정년후 출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및 가전제품업체인 일본 교세라社의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회장이 내년에 정년퇴임을 하고 수도승이 되겠다고 밝혀 화제. 이나모리회장은 최근 '65세가 되는 내년 회장직을 그만두고 사찰에 들어가 자신과 철학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모리 가즈오회장은 지



난 59년 파인세라믹소재를 개발 교세라사를 창업한 이래 현재까지 세계적인 벤처사업의 대부로 자리를 굳혀왔다.

대구진각회관 17일 헌공불사

진각종(총무원장 락해)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대구 대봉동 건들바위 사거리에서 진각문화회관 헌공불사를 봉행한다. 대구 진각문화회관은 총건평 1천3백50평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다목적 불교회관으로 대구불교방송이 입주해 있다. 이에 앞서 진각종은 오는 16일 오후 2시 흥인원 종조전에서 제33주기 종조열반절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는 각 해충인을 비롯하여 락해총무원장 4인장, 종단간부, 서울지구 승승 및 신교도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독수계산림 태고종 24일부터** 태고종(총무원장 해초)은 지난 1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각 시도 총무원장회의를 열고 전통문화계승 팔관대제 봉행과 합동독수계산림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통 불교문화 계승 팔관대제는 오는 11월 18일 대전엑스포 남관광장에서 열리며 영산재와 마정수기, 티벳전통불교문화

인 함연스가 시현될 계획이다. 한편 제20회 합동독수계산림은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순천 선암사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행사등록소양한객자 3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법종 창종 초대종정 의환스님** <묘법연화경>과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대한불교정법종이 최근 창종했다. 정법종은 강릉시 구월사에 총무원을 마련했으며 초대 종정은 정의환스님 초대총무원장은 박준업스님이다.

"성철스님일대기 영화로"

가제 '인간성철'...내년 초파일 개봉 목표 제작 박철수감독 "스님의 인간적 체취 담아낼 터"



중견 박철수 감독이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인간성철'(가제)을 영상에 옮긴다. 영화 '인간성철'은 지금까지 큰스님으로 추앙받았던 성철스님의 삶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담게 된다. 감독 겸 제작을 맡은 박철수 감독은 "이번 '인간성철'은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단순한 전기영화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성철스님을 만났

에서 바라보며 느꼈던 스님의 인간적 면모를 나의 시각에서 그릴 예정"이라며 "때에 따라 선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성철스님을 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301 302' '학생부군신위' 등을 제작한 박철수 필름에서 제작비를 조달, 이달 중 해인사에서 제작발표회를 갖고 촬영에 들어갈 '인간성철'은 총 제작비가 30여억원

에 이를 전망이다. 영화개봉은 내년 4월 초파일로 예정돼 있다. 박철수 감독은 지난 81년 불교영화 '니르바나의 종' 연출을 맡은 바 있다.

불교방송은 지난 7월 가을 맞이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음악프로 1개 신설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일부수정, 제목변경, 시간대 이동등 소폭에 그쳤다. 이번 개편으로 '명상을 악'이 매주 월요일~일요일 새벽 0시 30분부터 1시까지 새롭게 방송을 시작한다. 기존프로그램인 '이후의 가요산책'이 이번 개편으로 '트롯트 한 마당(달~일 오후 4시 10분)'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전수현안'도 '사사 매거진(월~토 오후 7시 25분)'으로 새로이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인 '신행 365일'이 매일 오전 8시 55분으로, '영화음악실'이 매일 새벽 1시, '저녁예배'가 매일 오후 6시, '경전공부(재)'가 매일 밤 10시 5분, 'BBS초대석'이 매일 밤 10시 25분, '합선아기(재)'는 매일 밤 10시 45분으로 시간대를 옮겼다. 이밖에 '가림을 찾아서' '살며 생각하며 1·2부' '꺼지지 않는 등불 1·2부' 등 일부 프로그램이 시간대를 변경했으며, 'BBS 스포츠'와 '저녁종합뉴스'가 각 5분씩 방송시간이 연장됐다.



해묵스님은 인터넷 활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으로 매주 월요일 불자들을 찾아간다.

btv '날마다...' 월요일 인터넷으로 만나는 불교 누구나 쉽게 인터넷 공부

인터넷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안내하는 불교 TV '날마다 좋은날'(오전 10시 15분~11시 15분)의 월요일 '인터넷으로 만나는 불교'가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새로이 개설된 이 코너는 불교문화진흥연구소 해묵스님의 진행으로 불교가 태국, 인터넷 속의 불교관련 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연장의 하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복습과 궁금증들을 풀어낼 수 있게 배려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nuri.net/~hyemook>

지난 9월 30일 연세대에서는 조출한 중정식이 열렸다. 전각가 안광석옹이 평생 제작한 작품 1천여점을 연세대에 기증했고 연대총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옹의 전각 판각 서예 인보 등 작품들은 연대박물관 2층에 마련된 '안광석전시관'에서 상설전시되고 내년 5월에는 안광석특별전시회도 개최한다. 80평생을 예술에 정진한 노 대가가 분신처럼 아끼던 작품들을 사회에 회향하는 모습은 마음을 호호뫄게 해준다. 그러나 이 보도를 접한 불자들은 마음이 편치않다. 원효 의상스님 법어

등 불교주제인 작품들이 기록 교재단인 연세대로 가야만 했을지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안옹의 자제가 동국대를 나왔고 안옹 스스로 한때 출가했었으며 불교를 주제로 전각을 하고 글씨를 써온 것을 익히 아는 사람들은 별 인연도 없는 연세대보다는 종립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했으면 얼마나 좋을지 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보면 이렇게 된다는 부주의와 무관심이 작용을 하고 있다. 안광석옹도 처음에는 동

대에 기증하고 싶어 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예산도 없는데...' 하면서 별 무반응이었다는 것. 그리고 안옹이 동대박물관에 가 보니 건물비 비좁고 초라해 기증했자 참고에 들어가 있

고 "이런 곳이라면 제대로 보관 전시하겠구나"하는 안도가 생겨 연대도 결정했다 한다. 평생을 통해 만든 훌륭한 작품, 모든 골동품, 귀중한 유물·책 등을 사회에 회향하려는 안광석옹과 같은 인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관심과 성의가 절대적이다. 주는 덕도 못 찾아먹는 데서야 어디 말이 되는가.

이경숙 기자

불교계 정보화 수준이 타종교에 비해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의 지구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한글검색엔진을 통해 국내에 개설된 종교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불교계 정보사업의 취약성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기독교·가톨릭이 각각 15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반면 불교는 9개 웹사이트 뿐이다.

더구나 이들 9개 웹사이트 중에는 개인 2개 대학동아리 1개 행사 1개 등의 웹사이트가 포함돼 있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5개 웹사이트에 불과하다. 그

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전국적인 정보고속도로(ATM)를 구축해 '실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정보는 공개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나 불교계는 전통적으로 정보공개를 꺼리는 특유의 보수성으로 인해 그릇된 정보개념을 갖게됐다. 또한 불이해와 보수성은 극소수의 불교관련 정보제공자(IP)들로 하여금 열세적이며 고립적인 속성을 띄게했다. 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불교계의 이러한 현안이 선결되지 않는 한 21세기 불교정보화시대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오종욱 기자



불자의 공지, 수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구독접수처) 안내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범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대불교 신문 구독접수처를 안내합니다.

지역	주소	전화	팩스
부산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051) 634-5114	634-5188
대구	대구시 중동 532-154	(053) 768-8008	766-3678
광주	광주시 서구 쌍촌동 837-4	(062) 375-9986	371-7544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032) 613-4027	665-0965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688-1 종합불교사	(064) 22-4878	55-9800
사천	경남 사천시 선구동 58-26 관음오행생식요법원	(0593) 32-5160	
파주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108-1	(0348)945-6815	945-6815
춘천	강원도 춘천시 은의동 141-3	(0361)241-0633	
영주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2	(0572) 34-3429	34-4489
안산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14-15	(0345)408-0961	409-4589
			012-946-957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풍전빌라 3동 103호	(0351)878-2889	
강릉	강릉도남동 노암1주공 2동 210호	(0391)647-9317	
목포	전남 목포시 상동 하당 비파 APT 201-1304	(0631)281-2534	
공주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1-15 묘한	(0416) 55-0020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업동 63 럭키APT 810-902	(344)912-2323	
강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64-11	(02)3664-7929	

현대불교신문 구독 신청은 가까운 지사·지국(구독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이 시대 포청천 이인제 경기도지사님! 부처님의 가피력이 영원하소서

28년 전에 한푼의 보상금도 없이 경기도가 보상의무자인 하천공사로 전채산인 농토가 하천이 되어 버렸지만 소송은 커녕 차비 한 푼 없는 처지로 지난 28년간 계속하여 내용증명으로 경기도에 정당한 보상을 호소하였으나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토지소유주였던 어머니는 2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까지 앓다가 제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또다시 보상을 신청했으나, 이 시점까지 보상에 관한 합의는 커녕 단 한번의 성실한 보상협의조차 없었기에 본 토지의 보상이 국가의 채무로서 성립조차 되지 못했음에도, 보상의무자인 경기도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국가채무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행정 심판 및 소송으로 정당한 보상받지 못한 책임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위법하게 전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저희 아홉 남매는 너무도 억울하여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차례로 분신자살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살보다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자애로운 영산 대선사의 인도로 이인제 경기도지사님을 뵈었습니다. 고매한 인품과 탁월한 법률지식으로 지사님은 이같은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며, 법 규정대로 정당한 보상이 경기도에 의하여 직접 이행될 수 있게 산하 공무원을 독려함으로써 지난 28년간 어머니의 억울함 해소는 물론 저희 아홉 남매의 생명까지도 구해 주셨습니다.

이미 상식화된 법 규정이 아무리 엄중해도 지난 28년 간 전민자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누적된 위법행위로 인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할 자신의 의무라는 결정보다는 위법하지만 단 한마디 스스로도 납득 못할 엉뚱한 주장만으로도 가능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거의 모든 공직자의 일반적 태도임에도 이인제 경기도지사님의 이같은 정법행 태도는 이 시대 공직자의 사표요, 둘도 없을 지도자만이 지닐 수 있는 고매한 인품과 바른 지도력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서원합니다.

신현주 신현숙 신현자 신현옥 신현순
신현경 신현철 신현애 신현석 **합장**